



인도·베트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신흥국 전략

인도·베트남, 미국과의 협상 현황 점검

인도·베트남-미국 협상 결과가 공급망 주도권 확보에 영향 미칠 가능성

인도와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국가들이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로 공급망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시점과 세부 내용은 향후 양국의 공급망 주도권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조업은 인도와 베트남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협상 결과에 따른 변화는 경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기에 두 국가와 미국의 협상 현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을 대표하는 국가이자 중국의 수출 우회로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할지 여부가 중국에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 : 가장 먼저 협상 타결할 것으로 기대되나 밴스 부통령 방문 이후 진전 無

인도는 지난 4월 21일 밴스 미 부통령과의 회담 첫날 협상운영세칙(TOR)을 체결하면서 글로벌에서 가장 먼저 협상 타결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도가 미국 측에 제시한 조건은 1)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30~100%→0~5%) 및 최혜국 지위 보장, 2)철강,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며, 미국 측에 요구한 조건은 섬유, 장난감, 보석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우대 관세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밴스 미 부통령 방문 이후 진전은 없는 상태이며, 오히려 인도 대미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예고되어 리스크가 확대된 상태다. 한편, 인도는 영국과 지난 3년간 끌어오던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 관세로 인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다각화를 모색 중이다.

베트남 : 조기 협상은 어려울 것, 관전 포인트는 베트남의 친미 노선 선택 여부

베트남은 4월 말 미국과의 협상에 본격 돌입했으며 5월 7일 베트남 총리와 USCC 위원장, 산업부 장관과 주베트남 미 대사가 각각 회동을 가졌다. 베트남은 1)미국산 LNG, 항공기, 의약품 등 제품 수입 확대, 2)미국산 농산물, LNG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3)중국의 불법 환적 단속 강화를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다만, 미국은 베트남을 중국 우회수출 루트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관전 포인트는 베트남이 협상을 위해 중국을 외면하고 친미 노선을 선택할지 여부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확실한 노선을 택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한 점,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과 F-16 전투기 구매를 논의하고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한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 측에 기울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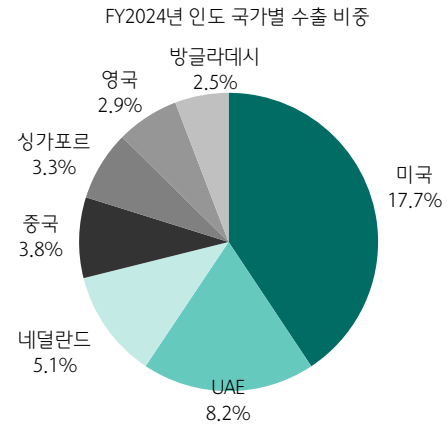
인도와 베트남 모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 다만, 베트남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나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인도의 무역 협상이 베트남보다 우선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5월에는 인도, 6월에는 베트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도의 협상이 먼저 타결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인도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표 1. 미국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율

미국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율		
	각 국→미국 부과 관세	미국→각 국 부과 관세
중국	67	34
EU	39	20
베트남	90	46
대만	64	32
일본	46	24
인도	52	26
한국	50	25
태국	72	36
인도네시아	64	32
브라질	10	10

자료: 하나증권

도표 2. 인도 국가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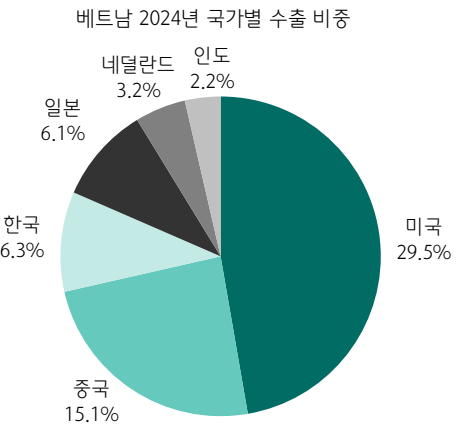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품목별 대미 수출 비중

품목별 대미 수출액 비중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의약품
인도	4.2	1.2	0.4	3.4	10.4
중국	2.8	0.8	0.2	3.9	0.5
한국	3.8	0.8	0.4	33.2	1.1
일본	2.2	0.1	0.2	35.2	1.8
대만	3.9	0.3	0.3	3.0	0.3
베트남	2.1	0.6	0.1	0.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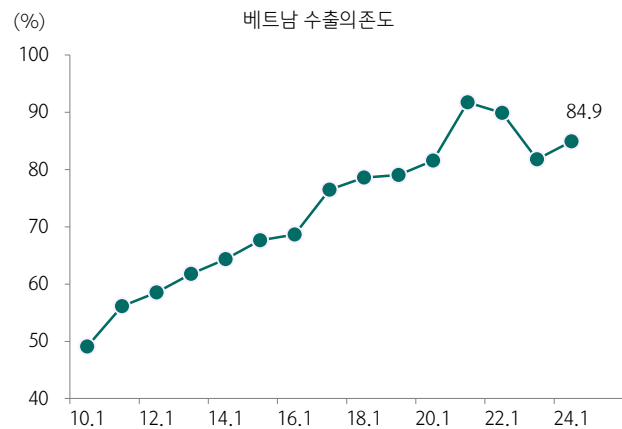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베트남 국가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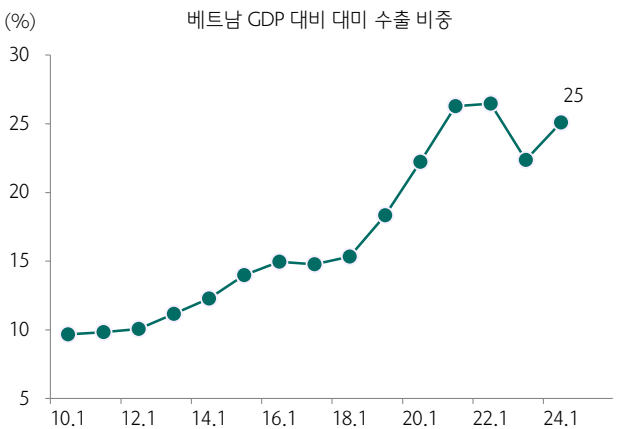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5. 베트남 수출의존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6. 베트남 GDP 대비 대미 수출 비중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